

2006년도 정기총회개최

가스사고예방실천결의도 겸행



부산지부(지부장 권평준)는 지난 2월10일 연산구 해암뷔페에서 중앙회 박기준 회장과 백성해대구경북지부장, 이동환 울산지부장, 협력업체대표 등 내빈과 대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.

권평준 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부산의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어느 때보다 시공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역을 확장할 수 있는 신기술을 습득하고 더욱 성실한시공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 어려움을 해쳐나가자고 당부하고 지부는 지난 한 해도 오직 시공인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며 중앙회의 정책활동과 지부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.

박기준 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일러설비업을 규제하고 시공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어떠한 법령의 개정 움직임에도 과감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며 올해에도 신기술과 인테리어 교육을 실시하여 시공인의사업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원들을 격려했다.

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활동과 지부발전에 공이 큰 유한중 회원등 3명에게는 중앙회장의 표창이 김성오 회원등 9명에게는 지부장의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2005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가스사고예방실천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종료되었다.